
碩士學位請求論文

어린이 언어 습득의 본질

—제2언어 습득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 順 澤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金 姬 淑

1991年度

어린이 언어 습득의 본질

—제2언어 습득을 중심으로—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金 姬 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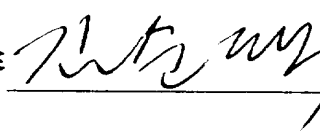

指導教授 金 順 澤

1991年 7月 日

金姬淑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1年 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主審 金鍾勳 

副審  

副審 高泰洪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목 차

I. 서 론	1
II. 언어 습득 이론과 습득 유형	3
2.1. 언어 습득의 이론적 배경	3
2.1.1. 행동주의 이론.....	3
2.1.2. 이성주의 이론.....	6
2.1.3. 인지주의 이론.....	9
2.2. 언어 습득 유형	11
III. 어린이의 제1언어 습득의 본질	15
3.1. 능력과 수행.....	15
3.2. 이해와 산출.....	16
3.3. 선천성과 보편성.....	18
3.4. 언어와 사고.....	19
3.5. 모방과 연습.....	21
3.6. 입력과 환경.....	24
IV.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의 본질	26
4.1. 신체적 요인.....	26
4.1.1. 신경학적인 문제.....	26
4.1.2. 정신운동의 문제.....	29
4.2. 인지적 요인.....	30
4.2.1. 인지의 중요성.....	30

4.2.2. 학습의 유형.....	31
4.2.3. 인지 스타일.....	32
4.2.4. 학습 전략.....	34
4.3. 정의적 요인.....	35
4.3.1. 개성적 요인.....	35
4.3.2. 사회문화적 요인.....	39
4.3.2.1. 문화적 고정관념.....	39
4.3.2.2. 문화충격	40
4.3.2.3. 문화이식	41
4.4. 언어적 요인.....	42
V. 결 론	45
참고문헌	47
영문초록	51



I. 서 론

현대의 어린이의 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는 18세기 말 독일 철학자인 Dietrich Tiedemann이 자신의 아들의 심리, 언어적 발달에 관한 관찰 기록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연구들은 단어 유형들을 구별짓기 위해 어린이의 발화를 단순히 기록하는데에 중점을 두어 시행되어 왔으나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어린이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논의는 언어를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 (critical period)가 몇 살인가에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어 습득에는 이런 생물학적인 측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과정이라든가 습득의 보편성과 관련된 언어의 생성과 인지 방법등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 또한 결정적인 시기와 관련하여 생리학적인 측면만을 중점적으로 다룬감이 없지 않다. 즉, 단순히 성인과의 비교만을 통해 언어적 사춘기 이전에 실시해야만 효과적이라든가 모국어 습득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조기교육을 반대한다든가 등 실시 시기에만 국한시켜 연구해 온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는 정상적인 발달 환경만 주어진다면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모국어와는 달리 제2언어 습득이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습득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습득의 적기만을 따져 어린이의 언어 습득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상의 개인차를 초래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요인의 어떤 면이 습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언어 습득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로서 언어 습득의 이론적 배경과 언어 습득 유형을 분류하고 III장에서는 어린이의 제1언어 습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자주 거론되어 온 주요한 논제를 중심으로 언어 습득의 본질을 제2언어 습득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V장에서는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V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다시한 번 종합하여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Ⅱ. 언어 습득 이론과 습득 유형

본장에서는 어린이의 언어 습득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과정으로서 언어 습득의 이론적 배경과 언어 습득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1. 언어 습득의 이론적 배경

어린이가 언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제시되어온 언어 습득 이론을 행동주의(behaviorism), 이성주의(rationalism), 인지주의(cognitivism)이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언어 습득 이론을 검토하려 한다.

2.1.1. 행동주의 이론

행동주의 언어 습득 이론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을 언어 습득에 적용한 것이므로 행동주의 심리학의 학습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학습도 다른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자극(stimulus)에 대한 반응(response)과 그 반응에 대한 강화작용(reinforcement)의 반복으로 생겨나는 결과라고 본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이 백지상태(tabula rasa)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양식을 습득해 가는 과정을 조건화 과정으로 보고 언어도 그와 동일한 과정에 의해 습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행동주의 학습 원리는 조건 형성의 형태에 따라 두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하나는 개의 타액 분비를 유도하기 위해 자극을 조건화시켜 실험했던 Pavlov(1927)를 기점

으로 한 고전적인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작동적 조건화(operational conditioning) 개념을 세운 Skinner(1957)의 입장이다.

Pavlov(1927)에 의해 처음 발견된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란 일정한 자극에 의해 선천적으로 유발되는 반응을 처음에는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중성 자극과 연합시킴으로서 이 중성 자극이 선천적인 반사 반응을 유발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반복하여 실행하면 동물의 능동적인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목표된 행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런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를 어린이에게도 적용시켜 Watson(1913)은 단어 형성 이론을 주장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어린이가 어떤 소리를 냈을 때 부모로부터 칭찬이나 보상을 받으면 그 소리를 반복하여 소리내는 동안에 정확한 의미와 어휘를 터득할 수 있고, 보다 복잡한 의미 내용이 얹힌 추상적인 단어도 조건 반응이 복합적으로 연결됨으로서 습득 된다는 것이다.

한편 Skinner(1968)는 Pavlov처럼 학습자를 항상 수동적 입장에서 보지 않고 유기체 스스로가 임의로 조작하는 행동으로서 이루어지는 작동적 조건화¹⁾를 중시하고 있다. 학습을 특히 어린이의 경우, 어른의 격려가 있어야 강한 촉진제가 되어 연습을 거듭함으로써 잘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자극과 반응보다는 어린이의 반응을 유발시킨 자극의 결과에 더 관심을 두고 강화를 시킬 때 어린이의 언어 습득도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물론 강화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주위의 칭찬이나 미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강화를 받으면 강화 받은 표현은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게 되고 반면에 꾸중과 부정적 강화를 받은 표현은 점차 쓰지 않게 됨에 따라 일반화와 유추를 거쳐 어린이가

-
- 1) 작동적 조건화란 학습자에게 매번 자극을 주지 않고, 처음 몇번만 자극을 주고 뒤 따른 능동적 반응을 예상해서, 시행착오 과정에서 우연히 목표 반응이 나왔을 때만 보상으로 강화시켜서 학습자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서 아무 자극 없이도 목표 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속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 기준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Rivers(1981)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ccording to this theory, infant acquire their native-language habits in the following fashion. At some stage during random babbling, infants make some sound which resembles the appropriate word for some person or object nearby. For this, the infant rewarded by the approving noises or smiles and so the probability that the same grouping of sounds will be emitted in a similar situation is increased. With repeated reinforcement a habit is established, and the child continues to name this person or object in the same way……As they acquire more of the syntactic and morphological variations of the language, they create new combinations by generalization or analogy, sometimes making mistakes by producing analogies which are not permissible in that language. By a trial-and-error process, in which acceptable utterances are reinforced by comprehension and approval and unacceptable utterance are inhibited by lack of reward they gradually learn to make finer and finer discriminations, untill their utterances begin to resemble more and more the speech of the community in which they are growing up.²⁾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단순히 언어를 습관 형성(habit formation)으로 보기 때문에 제2언어의 경우도 제1언어처럼 연습과 반복에 의해 습득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언어 자료를 들려주고 이를 모방 반복시키고 충분히 훈련시키며, 학습 환경 속에서 적절한 보상과 강화를 가해줘야 한다.

2) Wilga. M, Rivers,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 75.

그러면 이같은 행동주의 이론은 어린이의 언어 습득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 다음 세가지 이유로 이 이론은 어린이의 언어 습득을 완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첫째, 조건화 이론이 동물의 학습 행동은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인식의 신비성을 지닌 인간의 학습 행동에는 적합치 못하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제한된 언어 자료나 불완전한 언어 정보에도 불구하고 언어 구조를 습득하여 문장을 구사하는 내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어린이에게 강요하는 모방이나 강화작용은 오직 기본적인 언어 형태를 단편적으로 익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어린이의 창조적인 언어 습득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셋째, 어린이는 한 문장안에 연속되는 단어들 간의 일대일 자극 반응 연상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문장 연결체를 경험한 다음에야 언어를 습득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2.1.2. 이성주의 이론



이성주의 이론은 Decartes로 부터 시작하여 Humboldt에게 계승되고 언어학에서는 Chomsky(1965)의 변형 생성 문법으로 발전되었다. 이성주의적 관점에서 볼때 언어는 무의식적인 정신 활동에 의해서 습득된다.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내재적 정신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언어 지각 능력을 타고난 본능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Briefly, rationalist theories are characterized by an emphasis on intrinsic or innate principles in mental operations and learning. According to this view, organizing principles either directly guide man's perception and

learning or at least indirectly do so by predisposing man to operate in a certain way……These innate universals are present not because of specific experiences but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mind.³⁾

Humboldt에 의하면 모든 언어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의 심층 분석은 인간의 정신속에 내재해 있는 언어의 형상에 대한 분석이며 그 언어는 인간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심리적 해석이라고 한다. 이런 언어의 보편성이 언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적인 원리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그 원리가 생득적 특성의 하나인 정신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어린이의 언어 습득은 주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누구나 동일한 본능을 갖고 태어나서 어느 언어나 배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Chomsky(1965)는 이런 타고난 본능이 인간의 언어 습득 능력, 범위, 방법, 성질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언어 발달에는 언어 구조의 성숙적인 측면이 반영되며, 어린이가 어떤 특정 언어를 말하는 것은 그가 속한 문화에 따라 규정되지만 일정 시기에 도달하면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는 달라도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 수준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가 단기간 내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문장의 구성 규칙에 따라 무한하게 언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조적인 힘, 즉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이 있기 때문이며, 언어 학습을 위해 언어 습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이하 LAD라 약함)를 사용한다고 본다.

McNeil(1966)에 따르면 LAD는 언어 자료를 받아들여 두뇌 내부에서 어떤 언어 규칙 체계로 변형시킬 수 있는 인간의 언어 생성 능력 장치이다. 어린이는 문장의 심층 구조의 보편성과 표층 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사고 과정을 통해 언어를 습득

3) Joseph. F. Kess, *Psycholinguistics: Introductory Perspective* (New York : CBS College Publishing, 1983) p. 51.

한다는 것이다. 이 LAD에는 음성 언어를 다른 소리로 부터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언어학적 현상을 유형별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언어학적 체계가 가능한 유형과 그렇지 못한 유형을 구별해 내는 능력, 언어학적 지식을 계속적으로 평가하여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 등 4가지 선천적 언어 자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언어를 유한한 규칙의 체계로 보고 있으며 이 규칙만 운용하면 무한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국어 화자는 모든 문장을 머리 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적용시켜 수 많은 문장을 창조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1언어나 제2언어 습득 과정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is to say that an infinite number of sentences can be produced by what seems to be a rather small finite number of grammatical rules. A speaker does not have to store a large number of ready-made sentences in his head; he just needs the rules for creating and understanding these sentence.⁴⁾



유아기에는 언어 환경에 노출만 되면 별 어려움없이 2개의 언어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제2언어 습득이란 모국어 화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먼저 언어 현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표층 구조에서 심층 구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성주의에 입각한 Chomsky (1965)의 이론은 LAD가 구체화된 선천적 자질과 경향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 자질들이 어떻게 유전학적으로 이어지는가 등에 대한 구체

4) Karl Diller, *Generative Grammar, Structural Linguistics, a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ss.; Newbury House Publishers, 1971) p. 23.

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Schlesinger(1977)의 지적처럼 어린이의 언어 습득을 묘사할 때 인지 발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Phillips (1973)은 어린이의 언어 습득은 Chomsky(1965)의 주장처럼 언어학적 입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 교육적 배경, 심리적 요인 등 복합적인 변수에 의해 가능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이 이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2.1.3. 인지주의 이론

인지주의 이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인식 구조의 적용을 중시하고 어린이의 언어 발달을 인지 발달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인지 발달과 언어 습득의 정도에 대해서는 인지론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가 없이 크게 다음 두가지 입장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언어가 인지에 의존 한다는 입장이고, 두번째는 인지가 언어에 의존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데 인지 발달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연구를 이루어 놓은 Piaget(1952)는 인지 우선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인지 발달을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성적 조작기 등 4단계로 나누고, 인지의 근원은 감각 운동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언어보다 인지의 뿌리가 더 깊다고 주장한다. 또한 언어를 인지의 한 부산물로 간주하고 인지 발달이 선행되어야 언어가 발달한다고 한다. 물론 모든 어린이의 인지 발달은 불변적인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므로 언어의 발달도 보편성을 지니게 된다. 더우기 어린이는 문법과 동사를 선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표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에 의해 구조화된다고 한다.

반면에 Vygotsky(1962)는 어린이의 인지가 언어 환경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는 언어 중심적인 입장을 취한다. 언어와 인지의 근원은 서로 다르며, 언어의 지능 이전의 단계와 인지의 언어 이전의 단계가 있고, 언어와 인지가 서로 독립적으로 발달되다가 특정한 시기가 되면(Vygotsky에 의하면 생후 2년 이후) 상호 영향을 주게

되서 언어적 사고(verbal thought)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 자아 중심적인 언어가 나타나는 것은 외적 언어(external speech)에서 내적 언어(inner speech)를 발달시키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외적 언어란 남에게 소리내어 하는 말이며, 내적 언어란 자기에게 소리없이 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Vygotsky(1962)의 견해는 Piaget(1952)의 견해와 대조를 보인다.

Piaget(1952)는 자아 중심적인 언어에서 사회적 언어로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반해 Vygotsky(1962)는 언어란 원래 사회적인 것이며 자아 중심적인 언어의 단계를 거쳐 내적 언어로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Piaget(1952)가 논리적 사고는 사회적 언어에 의해 가능해 진다고 설명하는데 비해 Vygotsky(1962)는 언어적 사고가 내적 언어에 의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인지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언어 습득론은 다음 몇가지 한계성을 갖고 있다. Bloom(1976 : 37)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감각 운동 단계에서의 개념숙달과 실제 어린이의 초기 언어 발달과의 관계를 확증할 만한 실증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어린이의 언어 목록이 갑자기 급진적으로 증가하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별한 의미를 표현한 단어를 숙달한 후 어떻게 더 복잡한 문장 구조나 형태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언어 습득 이론중에서 어느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 한가? Brown(1987)이 제시하는 바에 의하면, 언어 습득에 관해서는 앞서 논한 어느 한 이론만이 고려되어서는 안되며 필요에 따라 각 이론의 장점을 이용하자는 생각이다. 필자도 심리학과 언어학의 상호 연관된 복잡한 언어 습득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어느 학자의 편중된 이론만을 받아들이기란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각 이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이른바 절충주의의 이론(eclecticism)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계적인 암기를 할 때에는 낮은 단계인 자극과 반응에 의한 습

관 형성을 중시하는 행동주의 이론을, 언어 구조를 내재화하고 어휘를 증가시켜 의사소통 기능을 높여갈 때는 이성주의 이론을, 종합적인 인지 능력이나 사고력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인지주의 이론을 활용하며, 특히 학습자를 하나의 전체적인 인격체로 보아 언어를 배우는 최근의 인본주의 심리학도 이용 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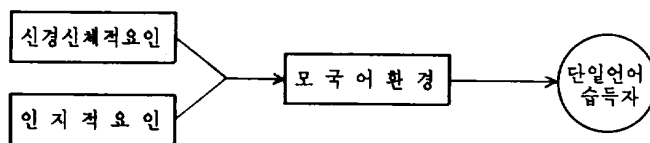
2.2. 언어 습득 유형

어린이가 태어난 환경은 언어 습득을 위한 온상이 된다. 어린이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단일 언어 환경에서 태어나면 제1언어만을 습득할 것이고, 이중 언어 환경에서 태어나면 이중 언어자가 되고, 단일 언어 환경에서도 교육의 힘에 의해 제2언어를 습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볼때 언어의 습득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비교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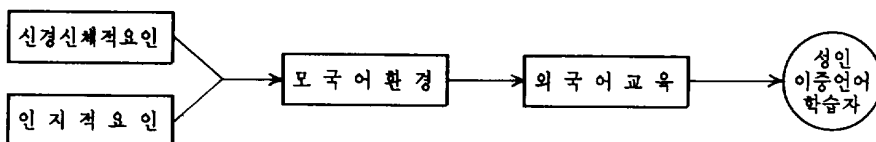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정동빈(1990)은 제2언어의 “습득론”과 “학습론”을 구분한 Krashen (1978)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언어 습득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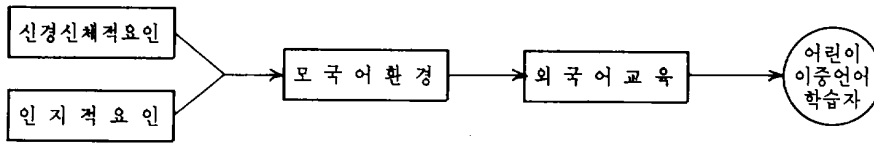
a. 단일 언어 습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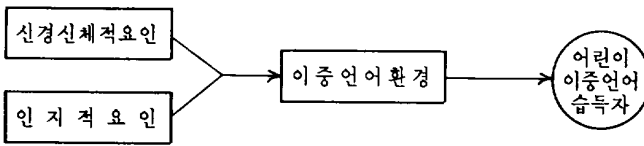
b. 성인 이중 언어 학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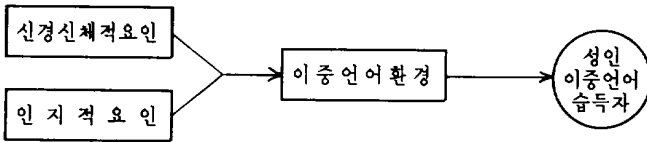
c. 어린이 이중 언어 학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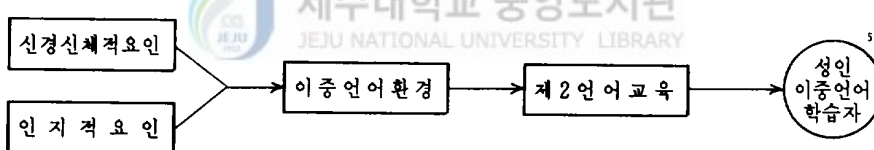
d. 어린이 이중 언어 습득자



e. 성인 이중 언어 학습자



f. 성인 이중 언어 학습자



여기서 언어 습득과 관련한 모형만 설명하면 a유형은 신체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갖고 태어난 어린이가 모국어 환경에 노출되어 단일 언어 습득자가 되는 유형이다. d유형은 신경 신체적 우수성과 인지적 사고를 갖고 태어난 어린이가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됐을 때 체계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을 받지 않고도 어린이 이중 언어

5) 정동빈, 「언어습득론」 (서울: 한신문화사, 1990) p. 466.

습득자가 된 유형이다. c유형은 신경 신체적 언어 습득 요인과 인지적 사고를 가진 성인 이중 언어 습득자가 된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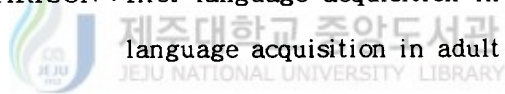
한편 Brown(1980)은 나이와 언어환경에 한정시켜서 언어 습득 유형을 다음과 같이 비교, 대조하고 있다.

	C H I L D	A D U L T	
L1	C1	A1	L1= first language
			L2= second language
L2	C2	A2	C = child
			A = adult

TYPE 1 COMPARISON : firs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children (C1- C2), holding age constant

TYPE 2 COMPARISON :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children and adult (C2- A2), holding second language constant

TYPE 3 COMPARISON : first language acquisition in childre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adult (C1- A2) ⁶⁾



제1유형은 연령을 불변 변수로 하여 어린이의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습득을 비교하는 것이다. 제2유형은 제2언어를 불변 변수로 하여 어린이와 어른의 제2언어 습득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비교 유형을 중심으로 특히 어린이와 어른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언어적 요인의 네가지 영역을 검토하려 한다.

6) H. Douglas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antice-Hall, Inc, 1980) p. 41.

구체적인 논리를 전개하기에 앞서 다음 두가지를 밝혀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 첫째는 언어 습득(language acquisition)과 언어 학습(language learning)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종전의 견해와는 달리 언어란 학습을 통해 습득된다는 최근의 견해를 받아 들이려 한다. 모국어의 습득 과정에서 어린이가 성장 발달하면서 사고와의 폭이 없어지고 사회화 과정을 밟으며 그 사회와 문화에 흡수되어 동질화 되므로 습득과 학습의 구별은 무의미하며 외국어의 습득 과정에서도 학습을 통해 목표어를 습득하게 되므로 결국 언어의 습득이란 학습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본고에서 말하는 제2언어 습득은 Dulay *et al.* (1982)를 따라 제1언어를 습득한 후 또다른 언어를 배우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즉 두개의 언어를 유아기부터 동시에 습득하는 동시적 습득(simultaneous acquisition)과는 달리 순차적 언어 습득(sequential language acquisition)이라 생각하면 된다.⁷⁾



7) Heidi Dulay, Marina Burt & S. Krashen. *Language Two*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10.

Ⅲ. 어린이의 제1언어 습득의 본질

본장에서는 어린이의 언어 습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모국어 습득 이론상 중요하게 취급되어온 몇가지 논제를 제2언어 습득과 관련하여 간략히 고찰하는데 그 의도가 있다.

3.1. 능력과 수행

언어학이나 언어 습득 이론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Chomsky (1965)는 언어의 습득에 관한 이론이 인간 언어의 보편 문법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 능력을 언어 수행(linguistic performance)과 구분하여 창조적이고 선천적인 언어 능력 구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Competence refers to one's underlying knowledge of a system, event, or fact. It is the nonobservable, idealized ability to do something.

Performance is the overtly observable and concrete manifestation or realization of competence. It is the actual doing of something: walking, singing, dancing, speaking.⁸⁾

능력이란 인간이 자신의 언어의 체계 즉, 문법규칙, 어휘, 언어의 모든 요소와 이

8) Noam Chomsky,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1965) p. 3.

들 요소들이 어떻게 함께 결합되는가를 이해하는 근본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반면에 수행은 말하기 쓰기 등과 같은 실제적 산출이며 듣기 읽기 등과 같은 언어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능력은 모국어 화자가 자신의 언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며 수행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발화 행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습득도 과거의 경험이나 어른의 모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에 대해 이미 내재화된 문법 규칙을 적용시키는 가운데 언어 지식을 끊임없이 변형 생성시키는 창조적 능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어린이는 이미 자신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규칙에 의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에게서 기본적인 언어 지식 즉, 능력을 측정해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성인인 경우는 묻고 대답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능력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어린이들의 기본적 능력은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제2언어에 있어서도 어린이의 문법 지식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모국어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성인인 경우에는 능력을 추정하는데 좀 더 직접적일 수 있어서 두가지 형태 중에서 한가지를 택하게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문법성에 대한 인식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

다만 성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모국어에서조차도 의식적으로 규칙이나 범례 등을 언어로 직접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하면 성인의 발화 능력의 판단에 있어서 언어 교실 내에서의 정해진 교재에 의한 수행과 일반적인 능력간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3.2. 이해와 산출

이번에는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할 때 발화를 어떤식으로 이해(comprehension)하고 산출(production) 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보자.

종종 이해를 능력으로, 산출을 수행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언어의 네가지 기능을 배경으로 간단히 둘 사이의 차이를 구별한다면 이해는 듣기와 읽기이고 산출은 말하기와 쓰기라고 할 수 있다. 산출은 이해보다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반해, 이해는 직접 관찰은 어렵지만 산출처럼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할 때 이해와 산출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하는가에 대해서는 상이한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예를들면 Miller(1963)는 어린이가 실제로 산출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한다고 함으로서 이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Recently a three year old child told me her name was Litha.
I answered "Litha?" "No, Litha," "Oh, Lisa" "Yes, Litha."⁹⁾

위의 예를 보면 어린이 자신이 그 차이를 정확하게 발음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s'와 'th'의 발음상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린이는 실제로 생해낸 문장 이상의 함축된 의미까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잘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근거를 놓고 보면 어린이는 산출보다 이해를 먼저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노래나 자장가 등을 곧잘 반복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어린이는 자신이 말하는 언어를 모두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제2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은 항상 제2언어를 말하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이해와 산출 모두에 유의해야

9) W. R. Miller, "The Acquisition of Formal Features of Languag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4 (1963) p.863.

하며 둘 간의 차이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2언어를 학습하는 어린이나 성인 모두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항목의 차이를 들을 수는 있지만 말로 산출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 항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반면에 어린이들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들은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언어 구조의 이해와 산출 중에서 어느 한면이 다른 한면을 능가한다고 하기보다는 단지 발달 속도가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 편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3.3. 선천성과 보편성

Chomsky (1965)는 어린이가 단순한 습관 형성에 의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일종의 "little black box"라고 하는 LAD에 의해 창조적으로 언어를 배운다고 본다. 그는 어린이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LAD의 존재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어린이가 접하는 언어 자료가 동일하지 않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습득 장치인 LAD가 있기 때문에 성인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자신의 의사를 전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입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어린이는 불충분한 언어 입력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으로 언어를 재생성할 수 있다. 즉, 불충분한 자료를 접하고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른과 대화가 가능하다.

셋째, 언어가 상당히 복잡한 것인데도 LAD가 있기 때문에 지능이 낮은 어린이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즉, 지능지수가 언어 능력의 차이를 초래하지 않는다.

넷째, 조직적인 언어 훈련이 없어도 언어 환경에 노출되기만 하면 성인보다 쉽고 빠르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외국어를 학습하는 성인은 상당히 힘들게 그것을 학습하는 한편 모국어를 습득하는 어린이는 쉽게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LAD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선 LAD는 어린이를 포함한 어떤

인간의 언어 습득에도 적용 가능한 모형이어야 하므로 상당히 풍부한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인간 언어에 적용되므로 가장 보편적이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더우기 어린이들이 구성하는 여러 가능한 문법 중에서 보다 나은 문법을 자신들이 선택하는 장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AD의 정체는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할 때 지니는, 특히 언어적 보편성(universals)을 반영하는 내재적인 지적 장치에 관한 가설로서 이 장치를 기반으로 좋은 문법을 선택하는 평가 방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재적이며 언어적 보편성을 갖고 태어난 어린이가 언어 자료를 받게 되면 그 어린이는 내재적 보편성을 활용하여 여러 문법을 구성하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문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언어와 관련하여 모든 언어에 보편적인 구조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제2언어 학습은 단순히 이미 확립되어 있는 기본의 의미에 새로운 표면 구조만을 학습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심층 구조가 모두 공통적이라는 점은 Putman(1967)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증거가 불충분하며, 오히려 의미와 사고는 표면 구조가 그런것 처럼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언어의 보편성을 제2언어 습득에 적용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제1언어와 제2언어 간의 공통성을 찾아보고 습득의 과정을 시험해 보는 것 뿐이다.

한 언어 집단내에서도 화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언어의 다양성과 언어들간의 수많은 변이성을 볼때 언어의 보편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또한 성인이나 어린이가 제2언어를 성공적으로 습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천부적 능력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흥미와 동기 등을 포함한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요인이나 교육 배경등의 복잡한 변수에 의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4. 언어와 사고

어린이의 언어 습득에서 논란되어온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제는 언어(language)와 사고(thought)가 동일한가 아니면 독립되어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행동주의 언어 학자들은 사고란 너무나 정신적인 것이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연구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Piaget(1952)는 각각의 언어는 말하는 사람의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이른바 언어 상대성(linguistic relativity)가설을 제창하여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는데 그의 가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The background linguistic system of each language is not merely a reproducing instrument for voicing ideas but rather is itself the shaper of ideas, the program and guide for the individual's mental activity, for his analysis of impressions, for his synthesis of his mental stock in trade. Formulation of ideas is not an independent process, strictly rational in the old sense, but is part of a particular grammar and differs from slightly to greatly, as between different grammars.

We dissect nature along lines laid down by our native languages. The categories and types that we isolate from the world of phenomena we do not find there because they stare every observer in the face, on the contrary, the world is presented in a kaleidoscopic flux of impressions which has to be organized by our minds—this means largely by the linguistic systems in our minds. We cut nature up, organize it into concepts, and ascribe significances as we do, largely because we are parties to an agreement to organize it in this way—an agreement that holds through our speech community and is codified in the patterns of our language. The agreement is, of course, an implicit and unstated one, but its terms are absolutely obligatory; we cannot talk at all except by subscribing to the organization and classification of data which the agree-

ment decrees.¹⁰⁾

언어 상대성 가설은 언어가 사고를 전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언어와 사고가 동일하다는 것에서 벗어나 언어와 사고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의 언어 습득과 관련한 논점의 방향은 어떻게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가 혹은 언어가 어떻게 사고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양자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은 둘다 독립적이면서 분리될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언어와 사고는 한쪽이 먼저 나타나고 뒤이어 다른 한쪽이 나타나는 것이라기 보다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며 그 기초와 발달 과정이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작용한다. 사물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정신 세계 안에서 일정한 형태를 통해 의식화되는 것이 언어 활동이라고 본다면 언어는 정신 세계 안에서 창조력을 지닌다고 하겠다.

3.5. 모방과 연습

흔히 어린이를 훌륭한 모방자(good imitator)라고 부르듯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 어린이는 자신에게 모형으로 제시되는 언어 항목을 그대로 본따서 많은 것을 습득한다. 이 모방(imitation)은 어린이가 언어 습득을 위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중의 하나이다. 특히 언어 학습에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모방은 행동주의 원리와 일치하는 면이 많다. 물론 행동주의에서는 단순히 한가지 유형의 모방만을 가정하지만 언어 습득 과정에서는 이보다 훨씬 중요한 모방의 심층 수준을 가정하는 점은 다르

10) Benjamin Whorf, "Science and linguistics", In de Cecco, J. P. eds. *The Psychology of Language, Thought and Instruction* (New York : Holt, Reinehart & Winston, 1967) p. 213~214.

다.

그러면 모방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표면 구조 모방으로 의미 해석보다는 음성학적 해석에 유의하는 표면의 음 연결체를 반복하거나 흉내내는 모방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표층의 기본을 이루는 의미 자료가 내재화되거나 참여할 수 없는 단계이다. 예컨대 성인들이 임의의 수나 무의미 음절을 반복하거나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언어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수준의 모방이다.

따라서 외국어 교실 수업에서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시키지 않고 학생들을 반복시켜 따라하게 하는 소리에 중심을 둔 기계적인 떼던 연습은 표면상의 모방만을 일깨운다. 어린이의 언어 습득이 최초의 단계에서는 발화에 필요한 의미 범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런 표면 모방이 나타남은 당연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심층 구조 모방은 어린이가 언어의 의미 단계의 중요성을 점차로 인식하게 되면서 언어의 심층 구조에 주의를 집중하여 모방을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모방은 어린이들이 그들 스스로의 능력을 발동시켜 습득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어린이의 언어 습득에서 자주 인용되는 McNeil(1966)이 기록한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CHILD : Nobody don't like me.

MOTHER : No, say "Nobody likes me."

CHILD : Nobody don't like me.

(eight repetitions of this dialogue)

MOTHER : No, now listen carefully; say "nobody likes me."

CHILD : Oh ! Nobody don't like me.¹¹⁾

어머니는 보다 기술적이고 표면의 문법적 차이에 주목하여 조동사 'do'의 그릇된 사용을 정정해 주려고 하지만 어린이는 이와는 관계없이 어떤 의미 가치 또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에 관심을 두어 정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아이는 자신이 하는 말과 어머니가 하는 말의 표면적 차이를 자신의 분석 능력에 의해 인식하고 자신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모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는 연습(practice)을 들 수 있다. 어린이는 언어를 끊임없이 연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점은 과거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언어를 자력으로 습관화할 때 많은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연상케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습은 항상 말을 반복하는 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연습이란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린이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언어 입력의 빈도수의 관점에서 이해 연습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언어 습득의 경우도 언어의 형태에 중점을 두어 기계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것보다 유의미적 의사소통 연습을 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Ausubel(1968 : 108)이 지적하듯이, 언어 습득에서 자극의 빈도수와 형태 연습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상황에 맞는 유의적 의사소통이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11) David. McNeil,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Smith F & G. A.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Cambridge, Mass. : M. I. T. press, 1966) p. 69.

3.6. 입력과 환경

어린이의 언어 습득에서 취급되어온 또 다른 논제는 부모의 언어 입력(input)이 과연 자신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실 생득적 언어 습득을 주장하는 Chomsky (1965)의 입장에서는 어린이의 내재적 언어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다시말해, 어린이의 언어 습득은 성인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특히 환경(environment)의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모가 어린이에게 미치는 인지적이며 정의적인 영향을 감안할때 부모로부터 언어를 습득하는 경우 자식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어린이가 들은 말은 일차적으로는 집에서 부모나 형제로 부터 들은 말이므로 언어를 습득할 때 환경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더우기 부모는 아이들에게 추상적이거나 멀리있는 대상물이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보다는 환경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게 된다는 Steinberg(1982)의 지적을 생각할 때, 부모의 언어 자료 입력이 언어 습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Brown(1987)이 동의하듯이, 성인의 언어 입력은 어린이의 언어 습득을 형성해 가는 것처럼 여겨지며, 어린이나 부모의 상호 접촉 유형은 어린이의 언어 기능이 증가됨에 따라 변화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제2언어 학습의 경우에는, 교사의 언어 입력이 부모의 언어 입력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교사는 부모가 그들 자녀에게 하듯이, 학습자와 사려깊고 의미있는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모국어 학습자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언어 입력은 제2언어 학습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므로 그 언어 입력을 의미있는 대화에 사용하도록 조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장에서는 어린이의 제1언어 습득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 습득 이론상 중요하게 거론되어 온 몇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2언어를 학습하려는 사람은 이미 제1언어를 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제2언어 습득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언어 습득의 본질을 일반적으로 파악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IV.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의 본질

본장의 목적은 제1언어를 습득한 어린이가 제2언어를 습득할 때 어떠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고찰하는데 있다. 자연적인 조건에서 제1언어를 습득하는 경우와는 달리 모국어를 습득한 후 제2언어를 배우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언어적 요인이 습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바 여기서는 그와 같은 요인들을 차례대로 검토하려고 한다.

4.1. 신체적 요인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되는 신체적 요인으로는 언어의 기능면에서 보는 두뇌 기능의 측면화 현상과 관련된 신경학적인 문제와 발성 근육과 관련된 정신운동의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이같은 신체적 영역이 언어 습득의 성공 기준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함을 밝히려 한다.

4.1.1. 신경학적인 문제

신경언어학자들은 대부분 어린이의 언어 습득이 두뇌 기능의 측면화(lateralization)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다. 알다시피 두뇌 기능의 측면화란 인간의 두뇌가 좌우반구로 양분되어 있어서 각각의 반구가 자체의 고유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외부 자극에 대하여 각 반구가 서로 다른 두뇌 기능을 보이는 양분화 현상의 총체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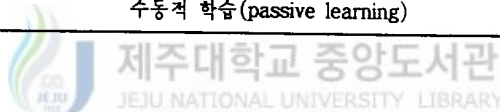
두뇌 기능의 측면화 작용을 정동빈(1990)을 따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좌 반 구	우 반 구
기능 : 말(speech)	기능 : 음악(music)
언어(language)	음율적 자질(멜로디 리듬의 억양)
난해한 계산력(calculation)	시간개념(temporal association)
복잡한 운동기능(motor function)	공간 통합력(spatial integration)
연합적 학습력(associate learning)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
경계심(vigilance)	단순한 계산력(simple calculation)
쓰기(writing)	단순한 어휘 사용력(simple use of words)
시간적 순서판단(temporal order)	종합적 인식(synthetic perception)
읽기(reading)	전체적 처리감각(holistic processing)
분석적 처리과정(analytical processing)	비언어 환경음(nonverbal environmental sounds)
우측 시각 영역(right visual field)	비언어 개념작용
	좌측 시각 영역(left visual field)

좌우 반구의 공통 기능

- 운동 반응(motor responses)
- 감각 과정(sensory responses)
- 수동적 학습(passive learning)

12:



이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좌반구는 말, 언어, 난해한 계산력, 연합적 학습력, 쓰기, 읽기 등의 지적, 논리적, 분석적 능력을 통괄하고 있으며 우반구는 음악, 시간과 공간, 창의적 사고, 단순한 계산력 등의 감정적, 사회적 욕구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운동 반응, 감각 과정, 수동적 학습 능력은 좌우반구가 다 공통적으로 통제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두뇌 측면화 작용이 과연 언어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두뇌 측면화 작용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은 사실 두뇌의 어느

12) 정동빈, op. cit., (서울 : 한신문화사, 1990) p. 69.

부분에 손상을 입었을 때 위에서 언급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시각은 좌반구에 장애를 입은 뇌졸중환자나 사고의 피해자는 우반구에 장애를 입었을 때 보다 언어 장애를 더 겪게 되기 때문에 언어를 통제하는 기능은 좌반구에서 이루어 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Molfese (1977)는 유아의 경우 좌반구가 음성 언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함으로서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결코 무실할 수 없다. 예를 들어, Basser(1962)는 유아의 좌반구가 상해를 받아도 언어 습득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Lenneberg(1967)도 좌반구에 손상을 입은 사춘기까지의 어린이는 언어의 기능을 우반구에 재 배치 시킴으로서 자신의 제1언어를 다시 배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Krashen(1973)은 5세 이후 사춘기까지의 어린이는 제2언어의 발음을 능숙하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물론 그같은 기능이 사춘기 전이나 이후나에 따라 약간씩 달라서 사춘기 이전이 어린이가 언어를 습득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사춘기 이후에도 언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Genie에 대한 보고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¹³⁾

따라서 언어를 습득하는 기능이 반드시 좌반구에 위치해 있다거나 아니면 우반구라고 하는 주장은 아직 더 많은 검증을 필요로 한다. 이같은 사실은 두뇌 측면화 과정이 언어 습득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두뇌의 측면화가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 요인이 분명하게 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13) *Ibid.*, p. 76.

4.1.2. 정신운동의 문제

이번에는 신체적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또 다른 문제로 제2언어 습득에 발성 근육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뛰어난 운동선수, 위대한 음악가등 근육을 잘 발휘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춘기 이전의 어린 시절부터 그 기술을 연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간의 발화는 조음에 사용되는 수백만개의 근육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모국어 화자처럼 유창하게 발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근육조절이 필요하다.

출생시의 발성 근육은 지속적인 울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후두 정도만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발성 근육이 점차 발달되어 5세 경이면 음성 조절은 거의 완전해진다. 물론 어린이에 따라 복잡한 소리 조절 능력은 5살 조금 지나서야 습득하는 경우도 있다.

어린 나이에 신체적 기능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다면 언어의 경우에도 발음면에서는 똑같은 말이 적용될 수 있다. 발음을 할 때는 수많은 근육이 통제되므로 어린이는 발화를 하기 위해 많은 근육을 잘 조절해야만 모국어 화자와 같은 발음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같은 발음 습득도 사춘기 이전까지가 활발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다. 왜냐하면 사춘기가 지나서 배우기 시작한 사람은 제2언어의 모국어 화자와 같은 발음을 습득치 못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Asher & Garmica(1969)는 나이의 증가에 따른 발음 능력의 감퇴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춘기 이후에 제2언어를 배울 경우에도 아무런 흠없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발음의 감퇴 상황을 구분지어줄 수 있는 분명한 연령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육 운동 기술이 언어 습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2. 인지적 요인

그러면 이러한 신체적 요인보다 어린이의 제1 또는 제2언어 습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선 인간 행동의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인지가 왜 학습에 필요한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제2언어 습득과 많은 관련이 있는 인지적 요인을 세가지 변수 즉, 학습 유형, 인지 스타일, 학습 전략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려 한다.

4.2.1. 인지의 중요성

인지란 인간이 감각 기관과 지각 기관을 통해서 창의적, 상징적, 논리적, 지적 사고를 하기 위해 외부의 정보를 분석, 종합, 구체화하는 일체의 정신 활동을 의미한다.

정동빈(1990)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지의 영역은 언어에 대한 체계적 습득, 지식의 저장상태, 두뇌의 사고 개념 활동, 상징적 활동, 언어표현 등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인지 영역을 고려할 때는 사고, 지각, 기억, 정신, 전략 등을 상호 관련시켜야 한다.

인지의 과정은 인간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지식의 정착과 활용의 과정을 뜻하며, 이같은 인지 과정은 감지, 기억, 개념 형성과 개념의 표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학습 유형으로 구성된 복잡한 인지 과정을 파악하지 않고는 제2언어 습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더우기 인간의 인지는 Brown(1987 : 47)이 주장하듯이, 인생의 처음 16년동안 내내 급속히 발전되다가 성인기 이후에는 발달이 늦어지므로 인지 능력이 언어 습득을 촉진하는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4.2.2. 학습의 유형

Ausubel(1968 : 108)은 학습을 인간의 인지 구조와 관련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인지 개념에 새로운 항목을 연관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학습에는 두가지 즉, 기계적(rota) 학습 유형과 유의적(meaningful) 학습 유형이 있다. 전자는 자료를 따로따로 떨어진 비교적 고립된 항목으로 습득하는 과정으로서 현재의 인지구조와 별로 관계가 없는 항목을 암기하는 것이며 후자는 새로운 자료를 인지 구조 속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항목과 연관시켜 체계적이며 유의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Ausubel(1968)의 학습 이론은 Gagné(1965 : 58~59)의 개념 학습(concept learning), 원리 학습(principle learning), 문제 해결학습(problem solving)에 의해 더 잘 뒷받침될 수 있다. 개념 학습은 일종의 자극에 반응한다는 것이며 원리 학습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된 개념의 원리를 학습하는 것을 말하며 문제 해결학습은 보통 사고라고 불리워지는 내적 사상을 필요로 하는 학습의 일종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념 학습은 언어와 인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의 구문 규칙이나 대화 규칙은 습득되어야 할 언어적 개념이라는 사실이 내포된다. 원리 학습은 언어 체계 속에서 규칙의 운용은 고립된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학습은 학습자가 지적으로 어려운 문제, 특히 영어의 경우 상황에 맞는 영어를 사용하는 정보와 지식이 내포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결국은 Ausubel(1968)의 학습 이론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제2언어를 습득하는 과정도 이같은 학습의 유형을 상호 관련시킴으로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4.2.3. 인지 스타일

제2언어 습득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인지적 요인 중에서 두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지 스타일로, 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한 개인을 구별지어주는 지적 작용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 스타일은 매우 다양한데, 정의적인 요인에서 다루어지는 개성적인 면과 다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복을 피해서 몇가지 스타일만을 다루도록 하겠다.

첫번째 현장 독립적(field independence) 유형과 현장 의존적(field dependence) 유형을 살펴보자.

현장 독립적 유형이란 항목들이 산만하게 퍼져있는 장(field) 가운데서 분리된 부분을 쉽게 인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성향을 지닌 사람은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분석적 능력이 있고, 일반적으로 독립적이고 경쟁적이고 자신감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장 의존적 유형은 분리되어 있는 항목들의 부분을 쉽게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의 통합된 전체에 의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현장 의존적인 사람은 보다 사회화되기 쉽고 주체성을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유출해 내려 하고 동정적이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이같은 두 유형은 제2언어의 습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현장 의존적인 사람은 동정적이고 외향적이어서 의사소통 학습시 성공에 이를 수가 있으며, 현장 독립적인 사람은 집중적 능력을 요하는 교실 학습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현장 의존형이나 현장 독립형이나하는 문제는 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므로 학습 내용에 따라 어느 유형을 이용할 것인지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과제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인지 스타일을 사용해야 하고 교사는 각 학습자가 선호하는 스타일을 정확히 이해하여 학습자에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번째 인지 스타일은 자신의 신념 체계나 지식 체계와는 반대되는 생각이나 제안을 인지적으로 기꺼이 참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예를들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나 사건, 사실 등을 받아 들이는데 있어서 비교적 개방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폐쇄적인 사람은 독선적이고 자신의 견해와 상반되거나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항목은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제안을 자신의 인지 구조에 끼워 맞추려고 한다.

이러한 학습의 두 스타일에는 모두 장단점이 내포되어 있다. 참을성이 많은 사람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자유스럽게 받아 들이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항목이든지 충분히 검토해 보지도 않고 받아 들이는 무모한 상태가 되기 쉽다. 반면 참을성이 적은 사람은 희망 없는 가능성에 매달리지 않고 이를 수 있는 실제 구조만을 취하는 장점이 있지만 완고하고 독선적이며 마음이 좁아져서 창조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같은 두가지 다른 스타일은 제2언어 학습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 제2언어 학습에서는 모국어와는 다른 단어들이나 규칙, 그리고 모국어 문화와는 다른 문화 구조가 나타나므로 어느 정도의 참을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 들 수 있는 스타일은 성찰적인 인지 스타일과 충동적인 인지 스타일이다. 충동적 인지 스타일은 해결책을 얻기전에 육감에 기초해서 가능한 다른 여러가지 성공적인 모험을 생각하는데 반해 성찰적인 인지 스타일은 문제의 모든 점을 고려해보고 모든 헛점을 검사하고 확대시켜 생각해 본 후에 신중한 해결책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같은 스타일도 언어 습득이나 제2언어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념적으로 성찰적 성격을 지닌 어린이는 충동적 성격을 지닌 어린이보다 독서를 할 때 오류가 적지만 충동적인 어린이는 독서 속도가 빠르고 대신에 실수가 많다. 그러나 독서 속도만을 놓고 성찰적인 인지 스타일이 언어 습득에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또한 앞서 고찰한 현장 독립성과 마찬가지로 두 스타일 모두가

제2언어 습득에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4.2.4. 학습전략

Brown(1987 : 79)은 전략을 문제나 과제에 접근하는 특수한 방법, 어떤 특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유형 또는 어떤 정보를 통제하고 다루기 위한 계획 설계 (specific methods of approaching a problem or task, modes of operation for achieving a particular end, planned designs for controlling and manipulating certain information.) 라고 정의한다.

그는 전략을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나중에 회상하기 위하여 특정 항목을 지각하여 저장해 두는 방법으로, 후자를 어떤 언어의 뜻을 해석하거나 표현하는 의사소통 달성의 방법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두 전략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려고 한다.

언어 학습에 흔히 사용되어온 전략에는 전이(transfer)와 간섭(interference), 일반화(generalization)와 단순화(simplification)등이 있다. 먼저 전이는 이전의 행위나 지식을 나중의 학습에 옮기는 것으로 선 지식이 후 학습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간섭은 선 항목이 학습할 항목에 부정확하게 연관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2언어 학습에서 모국어가 목표어인 제2언어에 미친 간섭 전략은 오류의 발생 요인이 되는 것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오류 분석(error analysis)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요인을 목표어와 모국어 간의 간섭 현상 때문으로 보는 것은 간섭 전략이 제2언어 습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화란 어떤 특정한 사실을 관찰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법칙, 규칙 또는 결론을 유출해 내는 것을 말한다. 일반화는 앞서 이미 다루었던 유의적 학습의 개념과 같다.

단순화란 제2언어 습득에서 복잡성을 없애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전체의 복잡한 구조에서 어떤 특징이 될 수 있는 소수의 부분으로 점차 일반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의사소통 전략은 언어 형태나 언어 기능을 표현하려는 시도로서 학습자는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전체 내용을 평가하여 청자의 심리적 측면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전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이 과정은 어떻게 의도하는 바를 언어로 잘 표현할 것인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것 같은 것을 어떻게 행동에 옮길 것인가 등의 출력의 양상에 관련이 되는 것이다.

4.3. 정의적 요인

이상 살펴본 바, 인지적 영역이 어린이의 언어 습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의 언어 습득이란 대단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인지적 요인만을 가지고 모두 설명하기는 미흡하다. 그렇다면 또 어떤 요인이 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은 인지적인 영역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이다. 본절에서는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정의적인 요인을 본질적인 측면으로서의 개성적 요인(personality factors)과 외부적인 측면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요인(socio-cultural factors)으로 나누어 고찰하려고 한다.

4.3.1. 개성적 요인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요인 중에서 개성적 요인에는 자신감(self-confidence), 억압(inhibition), 불안(anxiety), 감정이입(empathy), 동기(motivation) 등 여러 요인이 포함된다.

제2언어 습득을 위한 모든 조건들이 동일한 경우 자신감을 가진 학습자가 더 성공

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리란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비교적 새로운 경험에 쉽게 뛰어들며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학습 상황에 놓이기가 훨씬 수월하다. 더우기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바보스러운 실수를 했을 때 비웃음을 자아내는 결과에 의해 결코 위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학습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실수를 한 후에 겪는 당혹감도 훨씬 적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도 높은 편이다.

자신감과 연관되는 요인으로 자존심(self-esteem)을 들 수 있는데, 자존심은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하여 행하고 습관적으로 유지하는 평가를 가리킨다. 자존심은 보편적(universal) 자존심, 개별적(specific) 자존심과 과업(task) 자존심으로 나누어진다. 이 자존심들은 표현력과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고, 특히 과업 자존심은 구어를 사용하는 언어 수행 능력과 가장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높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외국어를 잘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감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또다른 요인으로는 억압이란 개념을 들 수 있다. 억압이란 자기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수단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아기가 점차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아를 배우게 되는 것이나, 아동기가 되었을 때 감지, 반응, 가치 체계 수립을 하는 것이나, 청년기에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에 의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 자기 방어적인 역할을 더 크게 하는 것은 모두 자기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방어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억압이란 개념은 자존심과도 밀접하게 관련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허약하거나 나약한 자아라고 생각하여 어떤 상황이나 과제에 대해 자신감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아와 자신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의 벽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때문이다.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2언어에 잠재적 위협을 느껴 방어적 태세를 갖추게 되는데 이는 특히 제2언어 습득에 해로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억압을 제거시켜야만 제2언어 습득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다.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개성적 요인으로는 불안을 들 수

있다. 어떤 복잡한 과업도 불안의 요소는 있기 마련이며, 이런 점에서 제2언어 습득 과정 또한 예외가 아니다. 불안은 부정적요소로서 어떻게든 피해야만 하는 요소로 보기 쉽다. 예를 들면 누구나가 큰 시험이 있기 전에는 “시험불안”을 흔히들 겪게 된다.

그러나 불안은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어떤 관심 혹은 근심등 긍정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다. 학습자가 완전히 긴장을 풀어버리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민첩하게 해주고 약간은 불균형한 상태를 유지시키는 촉진적 긴장감이 결여될 경우에는 될대로 되라는 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으므로 불안의 개념은 제2언어 습득시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Bailey(1983)의 연구에 의하면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의 불안감은 오히려 성공으로 이르게 하는 열쇠중의 하나이나 다른 학생들과 경쟁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경쟁심은 제2언어 습득에서 때로는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불안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친 불안과 너무 적은 불안도 성공적인 제2언어 습득 과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언어의 성공적인 습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개성적 요인으로는 감정이입을 들 수 있다. 감정이입이란 다른 특성과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자신을 벗어나서 이해하고 느끼는 것으로, Brown(1987:107)은 “the process of putting yourself into someone else’s shoes.”로 비유한다. 또는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다른 사람의 개성에 투사시키는 현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Webster 사전에서는 감정이입을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에 참여하는 능력으로 “capacity for participation in another’s feelings or ideas”라고 정의되어 있다.

언어는 감정이입의 주된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2언어를 배우는 사람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모국어 화자의 인지적, 정의적 상태를 정확하게 감지해야

할 뿐 아니라 서투른 언어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감정이입 능력과 제2언어 습득의 성공 여부와의 관계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연관 관계를 다소 예상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Stevick(1976)은 유아기의 언어 발달 기간은 마침 모자간에 감정이입이 발생하는 기간과 합치하므로 유아기의 따뜻한 인간 관계에 대한 체험이 언어 능력과 감정이입을 같이 달성시킬 수 있어서, 감정이입이 높으면 의사소통이란 어려운 벽이 쉽게 극복된다고 함으로서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개성적 요인으로는 동기를 들 수 있다. 동기란 Brown(1987: 114)에 따르면, 인간으로 하여금 특별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내적인 충동, 감정 또는 요구와 필요를 의미한다.

제2언어와 동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Gardner & Lambert(1972)의 연구로 그들은 동기를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와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로 분류한 바 있다. 도구적 동기는 예를들면 기술적 자료를 읽기 위해서라든가, 직장에서의 승진, 번역 등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언어를 습득하려는 동기를 말한다. 통합적 동기는 학습자가 제2언어 집단의 문화내에서 자신을 통합시키고자 한다거나 자신을 동일시 하고자, 혹은 그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할 때 취하는 동기이다.

그러므로 제2언어 습득과 동기에 관한 한 도구적 동기의 학습보다 통합적 동기의 학습이 성공율이나 성취도에 있어 더 높은 편이지만 학습자의 내적 필요와 사회적 조건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도구적 동기에 의한 학습도 성공적이라는 Lukmani(1972)의 연구도 눈에 뜨인다.

따라서 제2언어 습득과 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볼 때 어떤 형태의 동기든 제2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높을수록 성공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경우는 대개 도구적 동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영어 사용국에서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경우는 통합적 동기의 언어 학습이라 할

수 있다.

4.3.2. 사회문화적 요인

문화는 생활 방식이다. 문화는 일정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습, 기술, 예술등의 총체로서 정의될 수 있다.

문화는 Rivers(1981)가 지적하듯이, 지역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모든 양상(all aspects of shared life in a community)¹⁴⁾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있는 생활의 장이다.

특히 문화는 언어와 유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즉,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며 문화 또한 언어의 일부로서 두 요소는 미묘하게 얽혀 있어서 서로 분리되면 각각의 중요성을 잃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언어 습득은 제2문화의 습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외부적인 측면에서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변수를 문화적 고정관념(cultural stereotypes), 문화 충격(culture shock), 문화이식(acculturation)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4.3.2.1. 문화적 고정관념

문화적 고정관념이란 자신의 문화적 관점에서 새로운 언어나 문화를 접속하면서 느끼는 차이를 그릇되거나 이상하게 받아들여 일을 지나치게 단순화 시키는 현상을 지칭한다. 새로운 언어나 문화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개방적인 마음으로 서로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별 문제가 없으나 문화의 차이에 대해 폐쇄적인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되면 결국 문화에 대한 그릇된 고정관념을 계속 갖게 된다.

14) Willga. M. Rivers, *op. cit.*, p.316.

물론 문화적 고정관념은 반드시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예컨대 미국인이 격식 차리기를 싫어하고 개인적이며 수평적인 반면 한국인은 예의를 중시하고 집단적이며 수직적 관계를 따진다는 사실은 그 두 나라 사람들에게는 문화적 고정관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고정화된 이미지는 우리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고정관념화된 이미지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함축되어 있다. 한 문화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모두 정해진 범주에 꼭 맞는다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왜냐하면, 미국인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격식을 차리지 않거나 개인적이거나 수평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화적 고정관념과 관련된 한가지 문제는 학습자가 그 나라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 어떤 태도(attitude)를 보이느냐 하는 점이다. 태도란 인간의 인지와 정서 발달의 모든 양상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에 발달되며 부모와 동료들의 태도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의 결과로, 상호 작용하는 인간 경험의 정의적 요인이다. 이런 태도는 자아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타인과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에 대한 지각의 일부를 형성한다. 특히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영어 사용국의 문화, 사회, 국민들을 어떻게 인식 하느냐와 관계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영어를 더 유창하게 배울 수 있다는 Oller *et al.* (1977)의 연구를 생각할 때 교사는 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를 많이 고려해야 한다.

제2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다른 문화에 대해 학습자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나 문화적 고정관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현실적인 이해로 대치시킬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자신의 문화와는 다른 것이며 똑같이 존중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3.2.2. 문화 충격

사회적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느끼고 이해된 기호와 상징등을 상실하

계 됨에 따라 느끼는 일종의 불안감인 문화 충격(culture shock)은 제2문화에서 제2언어를 배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다. 문화 충격은 서먹서먹함이나 분노, 적개심, 우유부단, 좌절, 불행, 슬픔, 외로움, 향수병 심지어는 신체적 질병과도 연관되어 있다. 문화 충격에 시달리는 사람은 적개심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며 자신들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한다.

문화 충격은 Brown(1987)이 지적하듯이, 네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는 주위의 새로움 때문에 흥분과 행복감에 사로잡히는 시기이다. 둘째 단계는 개인의 자신과 안전에 대하여 갖는 환상속에 문화의 차이가 점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이같은 이질감이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문화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단계이다. 넷째 단계는 문화 충격에서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목표 문화에 동화되거나 적응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제2언어 습득의 초기에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데 모든 학습자가 긍정적으로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2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학습자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고 그 근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문화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학습자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하여 목표 문화에 대한 분노나 좌절감, 무력감, 방황감을 없애야 할 것이다.

4.3.2.3. 문화이식

문화이식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뜻한다. 문화이식은 제2언어의 학습 유형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제2언어로 영어를 배우는 경우는 새로운 문화권에서 생존하기 위해 목표

어를 배우므로 문화이식 현상이 가장 깊다.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필리핀이나 인도에서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경우는 문화, 사회, 정치적 상황과 개인의 동기 혹은 포부 여하에 따라 문화이식의 정도가 달라진다. 또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이유와 동기가 다양하므로 문화이식의 정도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 교육을 통해 문화에 함축된 의미를 배우기 때문에 필리핀이나 인도의 화자들 보다 문화적인 부담을 더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4. 언어적 요인

제2언어 습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할 문제는 언어적 요인으로, 어린이가 두개의 언어를 습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학습의 전이(transfer)에 관한 것이다. 제1언어이건 제2언어를 습득하는 경우이건 한가지 언어내에서 일어나는 언어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와 제1언어의 습성이 제2언어 학습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의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 절에서는 후자의 경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학습심리학에 따르면 선행했던 학습 경험이 다음에 새로운 사항을 학습하는 경우 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전이라 부르는데, 선행 학습이 다음의 학습을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의 전이를 촉진(facilitation)이라고 하며, 그와 반대로 어렵게 만드는 경우의 전이를 간섭(interference)이라 한다. 언어 습득 이론에서는 전이란 제2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제1언어가 미치는 영향으로 간섭 현상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제1언어가 제2언어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다. 예컨대 Lado(1957)는 제1언어와 제2언어를 대조 분석해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내면 학습상의 난점을 예측할 수 있다는 대조 분석 가설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We know from the observation of many cases that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the native language tends to be transferred to the foreign language... We have here the major source of difficulty or ease in learning the foreign language... Those structures that are different will be difficult.¹⁵⁾

즉, 두 언어상의 구조의 차이가 클수록 제1언어의 영향이 크며 유사점이 클수록 학습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국어의 영향을 크게 본 Lado(1957)의 견해와는 달리 Kellerman(1977)은 모국어가 미치는 영향의 영역을 훨씬 한정시켜서, 제1언어의 구조가 제2언어의 구조와 판이한 경우는 제2언어 학습의 효율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제2언어를 익힐 때 제1언어와의 유사점 내지 차이점을 학습자 나름대로 받아들이며, 두 언어의 구조가 비슷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모국어의 규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경향인 이른바 투사(projection)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이 투사 현상은 모국어의 영향이 학습자의 인지적 능력과는 관계없는, 전적으로 기계적인 전이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들과 달리 Dulay *et al.* (1976: 72)는 전이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언어 습득에 있어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인지 구조의 존재를 역설하면서 언어 습득이 기계적인 습관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는 제1언어로 부터의 전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제1언어의 전이가 제2언어 학습의 효율성과는 전혀

15) Robert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p. 58-59.

무관하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강한 것이며 인지적으로 안정되고, 제1언어의 기초가 확고하기 때문에 제1언어에 의해 많은 방해를 받는 성인과는 달리 어린이의 경우는 제1언어에 의해 방해를 덜 받는다고 말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IV. 결 론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을 거론할 때면 의례 결정적인 시기만을 강조한다. 그러나 언어 습득이란 단순히 실시 시기와 관련하여 생리적인 측면에서만 설명할 수 없으며, 특히 제2언어 습득이란 어려운 과정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즉, 인지적, 정의적, 언어적 요인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린이의 언어 습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그 이론적 기초로서 언어 습득 이론과 언어 습득 유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습득상의 개인차를 초개하는 요인을 신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의적, 언어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두뇌 측면화 현상과 발성 근육의 문제를 볼때 두뇌 측면화가 언어 습득에 영향을 다소 미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발성 근육과 관련된 측면에서 볼때 사춘기 이전에는 발성 근육의 유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음면에서는 어린이가 모국어 화자와 같은 발음을 훨씬 잘 습득할 수 있는 반면에 유연성이 감퇴하는 연령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 운동 기술이 언어 습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인지적 요인에서는 광범위한 습득상의 개인차를 초래하는 변수를 학습 유형, 인지 스타일, 학습 전략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유의적 학습이 언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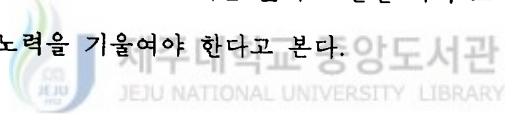
학습자의 인지 스타일에서는 현장 의존성과 현장 독립성 중 어느 한 면이 중요한 것이라기 보다는 한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양면성을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1언어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문화나 단어, 규칙등이 많은 제2언어 습득에서는 어느 정도의 참을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개인이 사

용하는 학습 전략은 자율적으로 학습자를 행동하게 하는 열쇠가 되며 그 자율성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언어 습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결국 인지 성숙이 반드시 습득상의 우월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어려가지 다른 스타일과 전략이 개인에 따라 상황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의적 요인으로는 개성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되는 바, 자신감과 모험심이 높고 동기가 유발된 경우에는 언어 습득을 훨씬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감정입이 잘되고 방어기제가 적은 어린이가 성인보다 훨씬 성공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제2문화 습득이 제2언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어적 측면에서는 제1언어가 제2언어 습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어린이에게는 성인에게서 처럼 모국어의 간섭 현상이 적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은 이미 제1언어를 습득한 후에 이루어 지므로 성공적인 제2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교사로서는 앞서 고찰한 여러 요인들을 다각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사현. "유아의 언어발달에 관한 고찰", 목포교대 논문 18집, 1978.
- 김영혜. "조기영어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율적 방안", 한국외국어대 교육논총 1집, 1986.
- 박춘식. 「아동언어교육」, 서울 : 학문사, 1990.
- 배경주. "영어교육에 있어 동기 성취를 위한 교사의 역할",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박중서. "Recent Trends in L₂ Acquisition Theories",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서은숙. "조기영어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석희선편. 「현대영어교수방법과 학습총론」, 서울 : 한신문화사, 1985.
- 임경희. "조기영어교육의 효율적 지도방안",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1984.
- 정동빈. 「언어 습득론」, 서울 : 한신문화사, 1990.
- 정명호. 「조기영어교육론」, 서울 : 한신문화사, 1989.
- 최옥란. "한국의 영어교육 실정에 맞는 외국어 학습이론의 적용"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Asher, J & Garmica, R. "The Optimal Ag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Modern Language Journal* 53 : 334-41. 1969.
- Ausubel, David A. *Educational Psychology; A Cognitive View*.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68.
- Bailey, Kathleen M. "Competitiveness and Anxiety in Adult Second Language Learning : Looking at and Through the Diary Studies," In Seliger and

-
- Long, Michael H. eds. *Classroom Oriented Research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wley, Mass. : Newbury House Publishers. 1983.
- Basser, L. S. "Hemilegia of Early Onset and the Faculty of Speech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ffects of Hemispherectomy," *Brain*. LXXXV. 1962.
- Bloom, Louis. "Language Developed," In Wardhaugh R. and H. D. Brown eds. *A Survey of Applied Linguistic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6.
- Brown, H. 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1987.
-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 M. I. T. Press, 1965.
- Diller, K. C. *Generative Grammar, Structural Linguistics, a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ss. : Newbury House Publishers. 1971.
- Dulay, Heidi C. and Burt. Marina K. "Creative Construc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anguage Learning, Special Issue*. No. 4 : 65-79. 1976.
- Dulay, Heidi C., Burt. Marina K. and Krashen, Stephen. *Language Two*.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Gagné, Robert M. *The Conditions of Learning*.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65.
- Gardner, Robert C. and Lambert, Wallace E.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Rowley, Mass. : Newbury House Publishers. 1972.
- Guiora, Alexander Z., Brannon, Robert C., and Dull, Cecelia Y. "Empath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2 : 111-130. 1972.

-
- Kellerman, E. "Towards a characterization of the strategy of transfer in L₂ learning, *Interlanguage, Bulletin* 2.1. 1977.
- Kess, Joseph F. *Psycholinguistics; Introductory Perspective*. New York : CBS College Publishing, 1983.
- Krashen, Stephen. "Lateralization, Language Learning, and the Critical Period : Some New Evidence," *Language Learning* 23 : 63-74. 1973.
- Lado, Robert.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 Lenneberg, Eric H. *The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67.
- Lukmani, Yasmeen. "Motivation to Learn and Language Proficiency," *Language Learning* 22 : 261-274. 1972.
- McNeil, David.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F. Smith and G. A.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Cambridge, Mass. : M. I. T. Press 1966.
- Miller, W. R. "The Acquisition of Formal Features of Languag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4 : 862-867. 1963.
- Molfese, D. L. "Infant Cerebral Asymmetry," In S. J. Segalowitz and. F. A. Gruber. eds. *Language Development and Neurological Theory*. New York : Academic Press. 1977.
- Oller, John W., Hudson, A., and Liu, Phillips F. "Attitudes and Attained Proficiency in ESL : A Sociolinguistic Study of Native Speakers of Chinese in the United States," *Language Learning* 27 : 1-27. 1977.
- Phillips, J. "Syntax and Vocabulary of Mother's Speech to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44 : 182-185. 1973.

- Piaget, J.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52.
- Putman, H. "The Innateness Hypothesis and Explanatory Models in Linguistics," In Searle, J. R. eds. *Synthese*. New York : D. Reidel. 1967.
- Rivers, Wilga M.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 Rubin, Joan. "What the "good language learning" can teach us," *TESOL Quarterly* 9. 1975.
- Schlesinger, I. "The Role of Cognitive Development and Linguistic Input in 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4 : 153-169. 1977.
- Skinner, B. F. *Verbal Behavior*.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1957.
- _____. *The Technology of Teaching*.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1968.
- Steinberg, D. D. *Psycholinguistics: Language, mind and world*. New York : Longman. 1982.
- Stevick, Earl W. *Memory, Meaning and Method : Some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anguage Learning*. Rowley, Mass. : Newbury House Publishers. 1976.
- Vygotsky, L. S. *Thought and Language*. Combridge, Mass. : M.I.T. Press. 1962.
- Watson, John B. "Psychology As the Behaviorist Views It," *Psychology Review* 20 : 158-177. 1913.
- Whorf. Benjamin. "Science and Linguistics," In de Cecco, J. P. eds. *The Psychology of Language, Thought and Instruc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67.

[Abstract]

Principles of Child Language Acquisition

—with an emphasi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Kim Hee-sook

Major in English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oon-taek

Most discussions on firs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have centered on examining a "critical period" for the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acquisition is so complex a process, however, that we can't explain all of its principles only with consideration of biological factor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iscuss the principles and types of language acquisition, and to provide an overview of physical, cognitive, affective, and linguistic factors on language acquisition as a foundation of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order to arrive at the goal, in chapter II, three theories of first language acquisition : Behavioristic, rationalistic and cognitive ones and three type of language acquisition are simply discussed.

In chapter III, some issues in first language acquisition are examined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implication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chapter IV, which forms the central focus of this thesis, four domains that have important effects on child language acquisition, are discussed. The four domains are: The physical domain, the cognitive domain, the affective domain and the linguistic domain.

Among physical factors, the lateralization process more or less affects language acquisition but not critically, and children who acquire a second language before the age of puberty can achieve the fluency of a native speaker, in that phonemic control is physically possible yet that mysterious neuromuscular plasticity is still present. The time that lateralization takes place and that the neuromuscular plasticity disappears is not so obvious that physical factors may be of minimal significance in establishing criteria for overall successful acquisition of a second language.

Among cognitive factors, types of learning vary according to the context and subject matter to be learned, but people of all ages can be successful as second language learners when they achieve meaningful learning. Second language learning necessitates an equal degree of both field independence and field dependence, plus tolerance of ambiguities, at least for interim periods. Learning strategies are the key to learner autonomy,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goals of language training should be the facilitation of that autonomy. Mature cognition, though, is not a liability to successful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t is desirable, rather, for the learners to invoke the appropriate style in the context.

Affective factors can be classified into two areas: personality factors and sociocultural factors. A learner with high self-confidence, risk-taking, and integrative motivation will yield positive resul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Children can be more successful language learners than adults because they have a high degree of empathy and low inhibition. A language is a part of culture and a culture is a part of language, thus the successful acquisition of a second culture provides a positive affect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mong linguistic factors, it is clear that the first language does not pose the same degree of interference in children learning a second language as it does in adults.

